

영어교육 27호
1984년 2월

영어·말하기 교육의 저해 요인(沮害要因)

배 영 자
(장로회 신학대학)

1. 서 론

외국어의 네가지 구사능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은 서로 관련이 있으면서도 또 서로 별개의 것이라는 점은 구태어 통계 숫자를 들어 설명할 필요가 없이 누구나가 실감할 수 있다. 이 점은 또한 이 네가지 기능을 골고루 배양하도록 교육 목표를 설정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이 네가지 기능 중에서 가장 습득하기 어려운 기능이 말하기라는 점에도 일반적으로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다. 엄격히 말하자면 중·고등·대학 과정을 고루 이수한 한국인들 중에서 문교부가 마련한 중학교 1학년 영어과 교과과정이 요구하는 교육목표의 말하기 실력(즉, 자기 주변의 일상생활에 대해 쉬운 영어로 의사 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갖춘 사람은 드물다고 봄이 옳을 것이다. 우리 나라 학생이나 지식인들의 영어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공통된 평가가 한국 학생들은 영문법은 알아도 말은 하지 못한다고 한다.¹⁾
- 2) 한국 학생 스스로가 자기 영어 구사력을 평가할 때 말하기와 듣기를 가장 못한다고 생각한다.²⁾

1) Edward Klein, "The Oral English of Korean College Freshmen," *The Proceedings of CETA, 2nd International Conference* (1982), p. 423.

"...there has been a steady stream of public self-deprecation in Korean educational circles about the inability of Korean students to communicate orally using English. It is said that Korean students learn their grammar well and are able to read and write English but are not able to speak or understand the language."

2) 배양서, 1984. 「美國 留學生들의 母國 英語教育에 대한 省察」 (미출판 논문).

- 3) 지난 몇년간 서울에서 개최된 몇개의 국제적 회합에서 한국인 교수들의 영어 구사 능력은 그들의 독해력에 비해 볼 때 너무나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³⁾
- 4) 우리나라 외무부는 산하 직원들의 언어구사 능력의 향상을 위해 자주 영어 재교육을 현장에서 시키고 있다.

이러한 형편의 구제책으로 한국영어교육학회는 문교부에 대학입학 예비고사에 듣기 시험을 첨가할 것을 건의했고(1980년), 문교부도 이를 그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전국 방송망을 통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 전원에게 듣기 시험을 과하였다(1982년 11월). 그러나 누구나 알다시피 듣기가 회화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는 하나, 들을 수 있다고 반드시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청취력테스트가 말하기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정상적인 학교교육을 받고 있는 한국 학생이나, 받은 졸업생과 지식인들이 영어책은 읽고 영어방송이나 강의는 들어도 어찌하여 말할 수 없는가 그 원인을 캐내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 영어교육에 참고가 되도록 함에 있다.

1.1 말하기의 정의

최근에 의사소통 능력(communicative competence)이라고 흔히 불리는 말하기 능력은 일반적으로 대화 능력 또는 회화 능력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논문에서 말하는 말하기 능력은 대화 능력은 물론 즉각적인 응답을 전제하지 않는 말들, 예를 들면 즉흥적인 연설이나, 준비된 절차에 따른 司會 능력이나, 미리 작성된 원고를 보면서 말하는 연설이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 일방적인 의사 전달까지를 포함한다. 즉, 입을 통해 전달하는 기능을 총망라해서 말하기 능력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종전의 일반적인 견해로는 이런 넓은 뜻의 정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른다. 내용의 이해 없이 책을 소리내서 읽는 것은 실질적으로 읽는 것도 아니고 말하는 것도 아님은 여기서도 인정하는 바이다. 그러나 국제 회의를 주재하는 한국인 사회자가 강사나 토론 참가자를 청중에게 소개할 때 미리 할말을 써 두었다가 가끔 원고를 보면서 말한다든지 영어를 잘 아는 자기 비서가

- 3) (a) 한국영어교육학회 주최 제 2차 영어교육 국제 학술대회(1982년 7월, 서울 배화 여전).
- (b) 한국영어영문학회 주최 국제 심포지엄(1982년 8월, 서울 정신문화연구원).
- (c) 한국 스피치커뮤니케이션학회 주최 The 13th CAP International Convention on Communication(1983년 7월, 서울 플라자호텔).

작성한 영문 연설을 알아 들을 수 있는 발음으로 청중 앞에서 읽는 일은 분명히 언어 기능의 하나임을 부인할 수 없다. 나는 최근의 어느 국제 회의에서 즉흥적으로 한 한국인의 광고를, 그 즉석에서 주최자측의 미국인이 다시 부연 설명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 만일 같은 내용의 광고를 미리 글로 써서 읽었더라면, 광고 내용은 충분히 전달되었을 것이며 본국인의 부연 설명이 필요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써서 소리내서 읽는 언어 기능의 중요성은 마땅히 높이가 평가되어야 하며, 이 기능은 네 가지 언어 기능 중 말하기 기능에 귀속시켜야 할 것이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구두 표현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해야 할 말을 써서 들고 읽는 것은 언어 잠재능력(competence)과 언어 수행(performance) 사이의 간격을 인정할 때 당연히 권장할만하다고 본다.⁴⁾

그렇다고 말하기의 중심인 대화 능력을 소홀히 하자는 것은 물론 아니다. 제 아무리 좋은 발음과 낭독술을 가졌다 하더라도 실제로 구두 의사 소통 능력(oral communicative competence)이 없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언급한 말하기 능력을 중요한 것부터 구별하여 요약해 보면 아래와 같이 될 것이다.

말하기 능력의 종류

- (1) 대화 능력
- (2) 토론 능력
- (3) 일반적인 의사 발표 능력 (즉석 연설 등)
- (4) 스스로 작성한 원고를 때때로 보면서 말하는 능력
- (5) 남이 작성한 원고를 청중 앞에서 읽는 능력

다시 말하지만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분야에서 강조해 온 의사 소통 능력은 대개 위의 (1)과 (2)에 국한되었고, (3), (4), (5)는 마치 말하기 능력과 상관 없는 것처럼 묵살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 나라의 외국어 학습을 동기(motivation)의 측면에서 볼 때 아무리 국가적으로 영어학습이 권장되고 있지마는, 영어는 이 나라에서 제 2언어(second language)가 아니고 고작 가장 중요한 외국어(foreign language)일 뿐이다. 따라서 제 아무리 장기간의 학교 교육을 거친다 하더라도 대화 능력과 토론 능력을 본국인과 가까운 수준으로 이끌어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영어를 말할 기회가 드물다는 것이다. 심지어 영·미국에서 거의 본국인에 가까운 말하

4) 사람이 마음 먹은 말(言語能力)을 제대로 입으로 표현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는 사실은 노암 촘스키(Aspects: 1965: 10)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누구나가 항상 체험하는 사실이다.

기 능력을 습득해 온 교수들도 本國人과의 끊임없는 접촉 없이 그 능력을 계속 수년간 유지하기는 힘든 것이다. 이 경우 차선책은 대화 능력은 약하더라도 국제적 모임이나 외국인들을 위한 모임에서 일방적인 자기 의사를 발표할 수 있고, 또는 미리 써 둔 원고에 따른 구두 발표를 잘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길러 두는 것일 것이다.

그러면 위에서 열거한 말하기 능력을 배우고 가르치는데 있어서의 저해 요인들을 한국적 상황에서 분석 검토하기로 하고 아울러 그러한 저해 요인들이 극복될 수 있는가 없는가, 만일 있다면 그 방법은 무엇이겠는가를 이 논문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2. 말하기 능력 습득의 저해 요인

여기서 논하고자 하는 것은 언어의 네 가지 기능 중에서 읽거나 듣거나 쓰기는 잘 하는데 유독 말하기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를 살피되 보편적 저해 요인과 더불어 한국인의 경우의 특수성을 개 보고자 한다.

2.1 보편적 저해 요인

2.1.1 “외국어”로서의 영어

어린이가 처음 말 배우는 과정을 보면 자기 생존에 필요한 말을 먼저 배우고 또 필요한 낱말들을 기어코, 또 반드시 배우고 만다. 이 생존을 위한 또는 사회 생활을 위한 언어 습득의 원리는 성인의 외국어 습득에 그대로 적용된다. 즉 우리는 의사 전달의 필요가 있을 때 가장 쉬운 전달방법을 취하는데 그것이 다름 아닌 자기가 가장 잘하는 언어, 또 상대방이 가장 잘 알아 들을 언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 내의 영어만 사용하는 인구는 극히 소수인 외국인 뿐이며, 이들과 실제로 영어를 통한 접촉을 해야할 기회가 극히 드물다. 이 말은 전문용어로 말하면 한국에서의 영어는 제2언어(second language)가 아니고 외국어가 된다. 외국어라, 주로 읽고 쓰고 듣는데 사용되는 언어이지 말하는데 사용되는 언어가 못된다. 홍콩이나 필리핀 사람들이 영어를 잘하고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 영어·문학 담당 교수들은 거의 전부가 영어를 읽고 듣는 능력은 충분하나 그 중에서 영·미국에서 오래 살다 온 후에 계속 외국인과의 접촉을 강요당하는 극소수만이 충분한 구두 구사력을 가진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2.1.2 목표어(학습어)에 대한 강박감

자기나라 말이나 글은 함부로 틀리게 하면서도 아무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없어도, 자기가 배우는 외국어의 철자는 하나도 틀려서는 안되고, 그 말의 발음이나 문법은 정확무오해야 한다는 심리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보편적 사실이다. 불어를 배우던 독일의 Frederic 대제가 그랬고,⁵⁾ 우리나라 영어 학도, 특히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그렇다.

그 결과는 배우는 말을 하려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맥박이 뛰고 입술이 떨려 입을 감히 열지 못한다. 성격이 활발하고 소탈한 사람이 이 점에서 좀 유리한 입장이다.⁶⁾ 이 “사대적” 강박감 역시 보편적인 현상으로 완전히 제거하기가 힘들다.

2.1.3 언어 구조상의 차이

영어의 문법구조는 한국어의 그것과 크게 다르다. 그렇다고해도 읽기와 듣기와 같은 수동적 능력을 습득하는 것은 목표어의 구조가 학습어의 그것과 거의 같은(예를 들면 일본어) 언어를 습득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말하기나 쓰기와 같은 능동적 기능 습득에 있어서는 자기말과 학습어의 구조의 차이가 크게 역(逆)으로 작용한다. 이것에 대한 실제 예는 일제 시대 동안에 일본어를 강요당했었던 세대의 영어 교육자들이 수십년 이상이나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 읽기능력은 일본어 읽기능력에 못지 않아도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는 일어 구사력이 영어 구사력을 훨씬 앞지른다는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론에서 말하기 능력을 새로 정의하고, 학습 목표를 합리적으로 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5) W. P. Lehmann,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lson, 1958) p. 217.

“Frederic, the great of Prussia considered German, *his native tongue*, the language fit for peasants. He often wrote French; when he did, he avoided German importations. His German letters, on the other hand, abound with French loan words[이태릭체 부분은 필자의 삽입].”

6) Rivers(1968 : 193).

“Nida noted among missionaries that the talkative extrovert learned the language faster than the quiet, studious person.”

또 이점은 각주 2)번에서 인용한 커뮤니케이션학회 국제대회에서 West Virginia 대학 J.C. McCrosky 교수의 Oral Communication Apprehension이라는 제목의 주제 강연에서 누누히 강조되었다.

2.2 한국적 저해 요인

2.2.1 문화 심리적 저해요인

서구 문화가 개성을 존중하고 공식상의 발언을 그 집회에 주는 공헌으로 인정하는데 반하여, 우리의 문화 전통은 대체로 그 반대이며 남의 눈치를 먼저 살피고 내 체통을 지켜야 한다.” 또 한국어는 존하대법이 엄격하여 상황에 맞는 스타일을 고르느라고 망서려야 할 뿐 아니라 어른이나 선배에게, 또는 그들 앞에서 자기 주장을 내세워서 말하면 버릇 없다고 간주되어 버린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좀처럼 입을 열어 말하기가 힘들다. 이 발언 기피 습성은 곧 외국어 학습에 연결되어 혹시 남이 어떻게 생각할지, 또는 틀리게 말하면 남이 비웃지나 않을까, 너무 자신 있는 듯이 말하면 건방지다는 평을 받지나 않을까 염려되어 의견 발표는 물론, 묻기도, 묻는 말에 대답도 하기를 꺼리게 된다.

물론 이러한 습성은 극기(克己)나 개인적 취향의 억제같은 유교적 전통과 직결되며⁷⁾ 교사 중심의 비민주적 교실 수업이나 사회 관습과 연관된다.

외국어를 읽거나 듣기는 해도 말로 하기는 싫다는 입장은 일본어가 제 2언어로 사용되었었던 일제시대의 우리 애국지사들의 일관된 철학이기도 했다. 칙령자들의 언어는 알기는 해도 차마 입으로 사용할 수는 없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했다. 많은 반일 문인들이 일본어로 글 쓰기를 거부한 것도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일제시대의 외국어 혐오증은 일본이 물러난 후 시작된 영어교육에도 그대로 연장되어 영어로 된 글을 읽기는 해도 말하기는 주저하는 많은 영어 담당 교사들을 본다.

2.2.2 교육적 저해 요인

교육도 문화의 일부임에 틀림 없으나 따로 항목을 설정해서 다루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 문제는 흔히 교육 투자와 동일시해 버리고 마는 경향이 있으나 사실은 투자를 덜 하고도 좋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본 논문에서의 주장이다.

첫째는 시설 요건이다. 우리나라 중·고등·대학에서 영어 말하기 교육이 잘

7) 이점에 관하여 조선일보 “萬物相”란(1983년 11월 30일)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말을 잘못한다는 것은 발표력이 없다는 것과 통한다. 그것은 어렸어서부터 훈련이 제대로 안됐기 때문이다. 발표와 토론 보다는 주입식 암기위주 교육을 하고, 말 많은 것보다 말없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관습 속에 우리는 살아왔다.”

8) Hugh MacMahon, (1975: 83-84): “Self-abnegation, suppression of feelings, Sacrifice of individuality were the prices to be paid and millions through a period of over 3,000 years considered it good value...”

안되는 이유를 과밀학급과 교사 부족에만 돌리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좋지 않은 교실 음향도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인 것이다.

모국어로도 그렇거니와 외국어로 말이 오고 가려면 말소리가 잘 들려야 하는데, 교실이 크거나 음향 장치가 안되어 있거나 천정이 높으면 소리가 잘 안 들린다. 그런데 이 세가지 조건 중 교실 크기가 음향에 제1차적 영향을 미치고 방음 장치와 천정의 높이는 부차적 위치를 차지한다. 그런데 이 세가지 조건 중 교실 크기를 줄이는 것은 수용 학생을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곧 교사와 시설을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방음장치와 함께 경제 사정이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 교실 천정을 낮추는일은 건축 설계와 난방에 있어 시설 투자와 교육 운영비를 당장에 줄이게 되므로 처음 설계할 때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된다.⁹⁾

교실 크기는 수용 인원 수와 직결됨은 누구나 아는 바인데, 외국어 회화 수업을 위한 적정 인원은 11명 정도라고 알려져 있다. 한 교사가 11명을 가르치는 것은 교수 기술이 부족한 한 교사가 60명을 놓고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하는 것보다 효과면에서 볼 때 경제적이다. 그러나 피상적으로 관찰할 때 60명을 가르치자면 다섯배 이상의 선생이 필요하니 당장에 경영상 수지가 맞지 않아 매개의 학교가 학과별영어 회화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짐차로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¹⁰⁾

둘째, 교사와 보조자료

본국인 영어 교사나 본국인을 따를 만큼 영어 구사력을 가진 한국인 교사가 거의 없는 형편이고, 도저히 수요에 미치지 못할 40~50개 좌석을 가진 언어실습실을 갖춘 중·고등학교가 잔혹 있으나 과외로 운영될 뿐이고 제대로 시설보수가 안되어 좋은 음질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일이 큰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일반 교실의 적정 인원의 두배(60명 이상)를 수용하는 처지에,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따로 시설을 두고 별도 운영을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이야기다.

이런 상황에서서는 이 문제를 국가 정책에 따라 현재 방영되고 있는 텔레비전 영어지도에 떠 맡겨버리고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몇몇 중·고등학교나 대학에서 하고 있듯이, 카세트 녹음기를 일반 교실로 들고 들어가 교사의 약

9) 공주 사대와 서강대학은 이점에 있어서 앞서가고 있다. 이중 전자는 현저히 천정이 낮으며, 후자는 천정도 낮고 교실 크기가 비교적 작다. 천정을 낮춤으로 크게 음향효과를 본 언어실습실로는 한양대학교 반월분교의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10) 그러는 가운데 교실 음향만이라도 개선하여 개인화 수업(individualizing instruction)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도 너무 학생 수가 많으면 힘들게 된다.

검을 보완하고 시설 투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나, 앞서 지적했듯이 교실의 음향이 좋지 않아 문제가 된다. 그런데 이에 앞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무리 기계나 녹음된 영어의 음질이 좋다 하더라도 기계를 통한 연습은 사회에 나가서 사람과 더불어 이야기하는데 별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교육 평가다.¹¹⁾ 하물며 일주일에 한 두시간을 그나마 처음부터 녹음의 음질이 좋지 않은 테이프를 교육적 내지 기술적으로 성숙지 못한 교사의 지도로 학생의 개인 실력차를 무시한 채 일정한 속도로 회전하는 테이프에 맡겨 진행되는 수업이 좋은 성과를 가져 오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세째, 교수 용어 (medium of instruction)와 교수법

전통적으로 우리 나라가 인정하는 외국어 교사 요건에, 말하기 능력은 처음부터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저 중·고등학교 영어교사 검정고시에 필답을 요구하는 발음 문제가 나올 뿐이다. 그 결과 말 못하는 외국어 교사가 속출하게 되고 따라서 교실 수업 용어는 한국어가 되어 버린다. 교사가 실제 학생과의 대화에서 목표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아무리 회화 연습을 많이 시키더라도 그 연습은 실제 사용에 응용되기 힘들다 (Evans: 1981: 155). 그러므로 교실의 수업 용어로 목표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당장에 학생들과 영어로 의사 교환을 하는 점에서 큰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¹²⁾

그런데 중학교에서 대학의 교단에 이르기까지 영어 시간에 영어로 가르치기를 시도하는 교사나 교수가 극히 소수임을 부인할 수 없다. 그 결과는 가르치는 사람도, 배우는 학생도 말을 잘 못하게 되고 만다.

또 교수법에 관하여 언급하자면, 변형문법이 나온 후에 인지주의 교육론자들이 무턱대고 문형연습이나 구두연습의 기계성만을 지나치게 과장하였는데, 그들의 주장하는 바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 국내 영어 교육자들 중에서 그들의 주장을 한국 영어 교실에서도 그대로 적용하려는 시도가 있었다.¹³⁾ 그러나 철저한 문형연습 없이는 한국어와 구조가 전혀 다른 영어의 문장을 도저히 생성할 수 없음을 영어 교육자 자신들이 인정하고 있는 바이다. 참스키 (1965: 47-59)가 이야기하는 인지적 교수법에 의한 언어 창조력의 개발은 문장 단위

11) 『영어교육』 No. 24. (1982년 8월) pp. 195-211에 실린 “어학실습실 수업의 비판론과 낙관론을 참조할 것.

12) 수업 용어로 목표어만 사용하기란 본국인 교사만이 할 수 있고 또 본국인 교사라고 해도 교수 기술이 부족하면 학생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이나 지시를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여기서 권장하는 바는 부득이한 경우본 한국어를 쓰고 되도록 영어로 수업을 하자는 것이다.

13) 황 적률, “Generative Grammar & Language Learning.” 『영어영문학』 22호 (1967) pp. 37-47.

(sentence unit)의 생성을 이미 익힌 학습자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그러므로 문장 단위의 유창한 생성까지는 문형연습을 능가할 교수법이 없는 것이다.¹⁴⁾

Rivers(1968: 195)는 끊임없이 spoken language에 접촉되어야 말할 수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pattern practice를 강조했다.

It is generally admitted that the early stages of foreign-language learning must be largely taken up with the thorough drilling of language forms and sequences, so that intraverbal associations are developed and the student learns to produce correct forms of utterance without concentrating on putting the elements together. In the drills, language elements are learned in their normal sequence in useful utterances and practice is provided in the rapid construction of sentence types through transformational drills.

위와 같은 Rivers의 관찰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는데, 왜냐하면 Rivers는 이 주장을 구조주의 전성시대에 한 것이 아니고, 인지주의 이론이 팽배한 때 한 것이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출판된 Rutherford의 외국 학생을 위한 교재 *Modern English*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8.)도 문형 연습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째, 교재의 문제이다. 최근의 문교부 교육 방침이 생활 영어 중심으로 되어 있는 것과는 달리 중학교 3학년 이상의 교재 내용은 대부분이 읽을 거리다. 또 대학 1, 2학년 교양 영어 교재들의 대부분은 문학·철학·과학 등 학문적인 내용이 거의 전부이고, 회화나 대화나 연설문 등처럼 말하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은 드물다. 대학 교재가 학문적 내용인 이유는 이 과목이 교양영어로 불리기 때문에 이 “교양”을 知的 양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그 첫째고¹⁵⁾ 그 둘째는 아무때도 대학 영어는 전문 서적을 읽을 실력을 기르는 것이

14) 김 진우, “어학실습실 낙관론” 『영어교육』 24호 (1982) pp. 199-211. T. Grant Brown, “In defence of Pattern Practice,” *Language Learning*, Vol. 19 No. 304 (1969) pp. 191-204, esp. 199.

최근에 나온 2편의 오류 분석을 다룬 논문(유 황로: 1983,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최 현옥: 1983,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은 한국 학생들의 빈약한 영문 구성 능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는 곧 문형연습의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문형 연습이라면 일반적으로 substitution drill만을 생각하고, 그 계승을 문형 연습의 전부인 것처럼 알고 있지만, substitution drill 이외에도 replacement drill, transformation drill, expansion drill, integration, restatement, paired sentences, association, progressive replacement drills 등이 있다 (Finocchiaro: 1973: 93-97).

15) 영·미 문학을 강의하는 교수들은 “교양영어”의 교양을 내용으로 보고, 어학교수

지상 목적이기 때문이다.¹⁶⁾

다섯째, 수업 시간수

한국어와 구조가 전혀 다른 영어를, 그것도 말하기를 더득하려면 최소한 하루에 두시간 이상, 이상적으로 말하면 하루에 다섯시간 정도의 집중적인 학습을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영어만 사용하는 환경에서 살아야지 지금처럼 하루에 한시간도 배당되지 않는 커리큘럼으로 10년간 공부해 봐야 잊어버리는율이 높으므로 배운 후 남는 것이 얼마 없게 된다(Kaplan 1982: 283—284, 배양서 1982, 241—249). 적은 시간을 10년간 계속하는 현 제도에서 여러 시간을 4~5년 동안 가르치도록 하는 편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다.

3. 저해 요인의 제거

저해 요인을 발굴하는 목적은 그것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은 물론이다. 이미 부분적으로 제거 방법이 앞에서 암시되었지만, 여기서 종합적으로 제거 방법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3.1 보편적 저해 요인의 필연성

3.1.1 사회적 이용 가치

영어가 한국에서 제 2언어가 못되고 겨우 외국어의 위치 밖에 점유하지 못함으로 인한 영어 사용의 기회현상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유고슬라비아처럼 전혀 서로 다른 언어가 다섯 가지씩 사용되는 나라나 홍콩이나 필리핀과 같이 영어의 세력이 그 지방어의 세력보다 강한 나라라면 영어를 학교에서 안 가르쳐도 사회에서 배우기 시작할 수도 있고, 또 학교에서 배운 영어를 실생활에서 응용할 수 있으나, 한국에서는 한국어의 세력이 절대적이어서 영어가 구어(口語)로 사용되지 않는 것이다. 이는 불가항력이다. 이런 상황하에서는 차라리 처음부터 말하기 교육의 목표를 낮추는 것이 좋을 것이다. 예를 들면 중학교 1학년 학생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지 말고 「영어의 음소를 구별할

들은 skill 습득으로 본다. 대학 영어가 성격상 실용적 가치를 갖느냐, 교양적 가치를 갖느냐에 대해서는 다음 논문을 참조할 것.

송 낙현, “대학 교양영어의 목표”, 『언어교육』 3권 2호 (1971) p. 3.

16) 필자가 재직하는 장로회 신학대학 Curriculum (1982—83년도)에 의하면, 대학 영어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언어의 표현에는 다양성이 있으므로 여러 분야를 다 망라하지는 못하나 독서에 필요한 교양영어를 익혀 전공분야의 원서해독을 가능케하는 실력을 키운다.”

수 있게 하고, 간단한 인사말과 쉬운 영어로 묻고 대답할 수 있게 한다.]는 정도로 목표를 낮게 설정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데 이 제의는 말하기 수준을 끌어 내리자는 것은 결코 아니고 성공 목표는 낮추고 좀 다른 각도에서 실력을 올리자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지만 남이 알아 듣지 못하는 유창한(?) 영어를 하기 보다는 미리 메모해 둔 원고를 가끔 보면서 누구나 알아 듣기 쉽게 이야기 할 수 있는 화술을 길러 주자는 것이다.

3.1.2 학습어에 대한 강박 관념의 제거

목표어가 강대국의 언어이거나 학습자가 동경하는 나라의 언어일수록 강박 관념의 도가 상승하는데, 이 현상이 보편적이어서 극복하기 힘들기는 하나 이 사실이 언어학습에 저해 요인이라는 것을 학습자에게 인식시키고 발음에 대하여나 문법에 대하여 교사는 관대히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이다. 학습자가 틀린 점은 동료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가 아니라 따로 우연한 기회에 고쳐 주도록 함으로 강박 관념은 어느 정도 제거될 수 있다.

즉, 발음에 대하여는 변이음(allophone)의 구별까지 요구할 것이 아니라 음소적(phoneme) 구별만으로 만족하고 통사에 있어서는 자주 가장 많이 틀리는 점을 지적해 주고 세밀한 과오는 작문 시간으로 미루는 것이 현명하다. 이 점은 과거 구조주의 학파의 교육 방법이 너무 정확 일변도로 흐른 점을 배척하는 새로 도입된 커뮤니케이션 중심의 교육 방법에서 취하고 있는 태도로, 말하기 기능의 신장을 위해서 환영할 만하다.

3.2 한국적 저해 요인의 제거

3.2.1 문화·심리적 저해 요인의 제거¹⁷⁾

봉건 군주주의나 독재 전치의 강압이나 유교적 전통과 남의 일에 간섭하기 좋아하는 사회풍토로 인해 눈치 살피느라고 자기 의사를 거리낌없이 발표하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 보기를 꺼리는 비릇을 고치는 방법은 학습자로 하여금 모르면서 아는체 하거나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체 하거나 하는 체면을 버리고 먼저 어린애와 같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배영자 : 1982: 93—104, Evans 1981: 157). 어린애가 되게 함으로써 먼저 심리적으로 안도감을 갖게 하여야 한다. 특히 큰 교실에서 권위로 군림하는 교사가 이끄는 수업일 경우 학생들은 불안해하는 것이다. 또 체면 때문에 갖고 있는 실력 이상의 실력을 발휘하려고 하면 말이 떨려서 더 잘 안나오는 법이다. 어린애는 개방적이고 솔직하고 자기 방

17)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에 대하여는 지난 몇년간에 걸쳐 『영어교육』에 나온 아래 논문들을 참조할 것. 유 무근(20호), 박 형기(23호), 배 영자(22호).

어를 하지 않고, 또 묻기를 좋아한다. 어린애는 남의 눈치를 살피지 않는다. 모르면 묻고 알면 안다고 모르면 모른다고 말한다. 심리적으로 이렇게 어린애와 같이 되게 하려면 교사는 그의 위치를 버리고 학생들 중 하나가 되어야 한다. 본국인 앞에서는 떨려서 더 말을 못하게 되는 것은 외국어 학습자의 공통된 경험인 것이다. 학습자는 목표어로 겨우 입을 빼고 있는 것이니, 교사는 몸 동작을 포함한 모든 수단으로 천천히 말 해야 한다. 심리적으로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말하기 습득의 첫 걸음이다.

외국어에 대한 배타적 태도는 흔히 말과 글과 민족혼이 삼위 일체라고¹⁸⁾ 하는 편협된 생각에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 세가지는 서로 관련이 있지만 꼭 떼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영어를 사용하는 인도 사람이나 미국인들이 영국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인도와 미국에 충성한다는 점을 예로 들어서 언어는 어느 것이나 사회 생활의 영위를 위한 도구에 불과함을 인식시켜야 한다. 민족과 언어가 대개의 경우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사실 때문에 동·서양을 물론하고 이 두가지를 동일시하려는 일반적 경향은 과학적 언어학도들을 당황하게 만드는 예가 많다. 더구나 일제의 한국어 말살 정책에 대한 반발로 「국어 사랑=나라 사랑」이라는 공식을 국어 시간에만 아니라 전체 학교의 표어로 삼는(초·중등학교의 경우) 우리나라의 교육 풍토에서는 「외국어 사랑=비애국 행위」라는 논리가 일반국민의 잠재의식 속에 스며들어가져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외국어는 오늘날의 국제화 사회에서 필요를 더해 가는 하나의 생활도구라는 사실을 먼저 인식시킴으로, 심리적 억압과 부담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마음으로 학습할 수 있게 하면 외국어의 말하기 학습이 보다 쉬어질 것이다.

3.2.2 교육적 저해 요인의 제거

첫째, 교육상의 문제점을 일선 교사들이 찾고,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을 자율화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문교 당국이나 학교 당국이 결정하기보다 가르치는 교사의 의사를 존중해야 한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여러 대학에서 영어 강독 수업을 위해 배정된 인원(60명~70명)을 단지 행정상의 편의만을 위해서 그대로 회화시간에 같은 인원을 배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영어를 직접 가르치는 담당자의 발언을 존중한다면 이런 일은 도무지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18) 한글학회를 정신적 敎父(교부)로 삼는 해방후 우리 나라의 국어교육은 이러한 민족적 감정에서 출발했다는 사실이 엿보인다. 예를들면 한글 전용 운동이나 일본의 태어의 추방운동에서 淸·文·魂 三位일체설이 곧잘 나온다.

둘째, 교실 시설 요건의 개선이다. 교실이나 언어 실습실의 청정을 보다 낮게 하여 음향을 좋게 해야 한다. 모국어로는 외국어로는 말이 오고 가려면 말 소리가 잘 들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음향 조건이 좋아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교실의 음향 조건을 좋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현재의 사정으로 할수 있는 가장 용이한 것이 청정을 낮추는 일이다.

셋째, 교재 내용에 말하기 자료를 풍부히 넣어야 한다. 교재에 생활 영어 중심의 대화체 문장을 많이 넣으면 말하기 학습에 도움을 줄 것이다.

넷째, 대부분의 교수용어(*medium of instruction*)를 한국어에서 영어로 바꾸어야 한다. 아무리 회화 연습을 많이 시켜도 학생들이 한 연습은 실제 대화에 응용되기 힘들다. 교실에서 목표로 수업한다는 것은 학생들과 영어로 실제 의사교환(*communication*)을 한다는 점에서 큰 교육적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전 수업을 영어로 하기는 힘들겠지만, 처음에는 "Good morning"부터 하기 시작해서 어느정도 일부라도 영어를 사용한다면, 크게 효과적일 것이다.

다섯째, 교실 활동을 읽기 중심에서 말하기 중심으로 바꾸어야 한다.

여섯째, 교실 수용 인원을 크게 줄여야 한다. 청정의 높이를 낮추는 일과 더불어 교실의 크기를 줄이면, 자연히 교실 수용 학생수가 줄어들게 된다. 수용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은 곧 교사 수를 늘리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당장에 경제문제가 따른다. 그러나 수용학생 수가 학습효과에 미치는 영향이 외국어 수업에만은 매우 크다는 사실을 학교 경영자들은 인식해야 할 것이다. Kaplan (1982: 283)은 외국어 교육의 경제성에 관하여, 교실에 학생을 적게 수용하는 것이 많이 수용하는 것보다 궁극적으로 얼마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느냐하는 것을 숫자적으로 세밀히 보여주고 있다.

4. 결 론

영어의 4기능 중에서 한국 학생에게 가장 배우기 힘든 기능이 말하기인데 그 이유는 첫째, 영어의 구조가 한국어의 그것과 너무나도 다르고, 둘째, 영어는 한국에서 제2언어가 아니라 외국어의 구실 밖에 하지 못하며, 셋째, 인지주의 교육 이론의 영향으로 입을 통한 연습 중심 수업이 소홀히 되고, 그리고 학생들은 말을 적게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남의 실수에 대해 관용을 베풀기에 인색한 문화 전통 아래에서 살고 있고, 더우기 과밀학급에서 발언의 기회를 거의 얻지 못하는 것이 넷째 이유이다. 다섯째, 교실을 포함한 교육시설이 말하기 교육에 적당하지 않고, 여섯째는 말하기 능력 개발의 목표가 너

무 이상적이고 또 편협하기 때문이다.

영어를 일상생활에 제 1언어 또는 제 2언어로 사용하는 홍콩 등지에 사는 중국인의 영어 구사력을 우리 나라 학생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다. 외국어로서의 영어를 배우는 한국 사람에게 요구되는 말하기 능력은 쉬운 대화 능력과 작성된 원고를 보고 말하고 연설할 수 있는 정도인 것이다.

이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하여 영어의 도구성을 정확히 인식시키고 학습자는 친진한 마음과 호기심으로 영어에 접해야 되며 영어 실력에 대한 허세나 자존심을 배제하고, 외국어로 말하는 것은 결코 비애국적 행위도 아니고 자랑스러운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또 철저한 문형 연습을 시키되 기계적 방법을 절제하고, 지나친 정확성을 요구하는 대신 “의사 소통 능력”을 중요시하는 평가 기준을 세움으로 사소한 문법적 과오를 관대히 보아 주도록 한다.

또 앞으로 설계될 교실을 작고, 친정을 낮게하며 음향 효과를 높여 대화활동을 촉진하도록 하고, 수용 인원을 적게 하여 말할 기회를 많이 주도록 한다. 교재 내용을 대화나 연설문으로 보강하고 교사는 교실에서 학생과 영어로 의사 교환을 하도록 노력한다.

영어가 한국인에게 너무나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지금까지처럼 조금씩 6~10년 간에 걸쳐 가르치기 보다는 기간을 단축해서라도 집중적으로 가르치도록 교과 과정을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 고 문 헌

- Brown, T. G. 1969. "In Defence of Pattern Practice", *Language Learning*, Vol. 19, No. 304, 191—204.
- Chomsky, Noam. 1965.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MIT Press.
- Evans, Daniel E. 1981. "Current Trends in Foreign Language Education and Their Role in English Teaching in Korea", *English Teaching*, No. 21, 145—159.
- Finocchiaro, M. and M. Bonomó, 1973. *The Foreign Language Learner*. 93—100.
- Kaplan, Robert. 1982. "Lectures in Applied Linguistics and Related Topics" The Proceedings of The 2nd CETA International Conference. 283—284.
- Klein, Edward. 1982. "The Oral English of Korean College Freshmen," *The Proceedings of The 2nd CETA International Conference*. 423—444.
- Lehmann, W.P. 1958. *Historical Linguistics*. New York: Holt, Rinehart & Winston.

- MacMahon, Hugh. 1975. *The Scrutable Oriental*. Seoul: Sejong Corporation, 83—84.
- Pae, Yang-Seo. 1982. The Optimal School Age for Teaching English in Korea. *The Proceedings of The 2nd CETA International Conference*. 241—249.
- Pae, Young-ja, 1982. "Infantalization of Korean Adult Learners of English". 『영어교육』 23호, 93—104.
- Rivers, Wilga M. 1968.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Rutherford W. E. 1968. *Modern English*. Univ. of California Harcourt, Brace & World, Inc.
- 김진우, 1982, 「어학실습실 수업 낙관론」, 『영어교육』 24호, 199—211.
- 송낙헌, 1971, 「대학 교양 영어의 목표」, 『언어교육』 3권 2호, 3.
- 황적륜, 1976, "Generative Grammar & Language Learning." 『영어영문학』 22호, 37—47.

<Abstract>

Factors Detrimental to Learning Speaking Command of English

Young-ja Pae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Korean learners of English particularly lack speaking ability among the four foreign language skills for the following several reasons: 1. The structure of English is radically different from that of Korean. 2. English is used in Korea not as a second language but as a foreign language. 3. Since the English teachers are preoccupied with the newly introduced cognitive learning theory, oral drills favorable to speaking skill are neglected. 4. The cultural climate surrounding Korean students discourages oral expression and classmates are intolerant toward erroneous expressions. 5. Educational facilities, including classroom, are unfavorable to the teaching of speaking skill. 6. The goal of speaking skill as set forth in the curriculum is too lofty and too narrow.

It is obviously too greedy to require the same communicative competence from Korean students as that of students in Hongkong or Singapore where English is used either as a first or second language. All we can hope for is to enable our students to engage in an unsophisticated dialog and to develop competence for delivering speech written in advance, and for presiding over an international gathering, etc. Here oral-reading is regarded as part of speaking skill.

To achieve these goals, Korean students should be psychologically reoriented in such a way that they may view languages, native or foreign, as tools for living, not as something inherently tied with a particular nation or nations. In addition, students are to be made like simple-minded children

free from anxiety when speaking. Pattern practice implemented meaningfully is highly recommended, requiring not flawless response from students but communicative competence.

To obtain a maximum acoustic efficacy the ceiling of the classrooms should be made lower than the present height and the classroom size be reduced to enhance the acoustics and promote personal contact during the class period. Textbooks should include more dialog materials, dramas and speeches. Both the teacher and students should use English actively in the class not only for practice but also as a means of communicative interaction.

In view of the fact that English is so difficult for Korean speakers to learn the curriculum should be revised in such a way that our students may be able to take it intensively by reducing the present 10 year teaching span to five or four years.